

제24기 해외역사문화탐방 보고서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던 해외역사문화탐방이 다시 재개 되어 선발공고가 올라왔다. 나에게도 행운이 미소짓길 바라며 지원했는데 감사하게도 24명의 선발인원중 한 명이 되었다. 이번 탐방지는 몽골이다. 몽골제국은 약 150년간 불꽃처럼 등장해서 불꽃처럼 사라진 제국이다. 청나라 지배 시대에 고비사막을 기준으로 북쪽은 외몽골, 남쪽은 내몽골로 분리 되었는데, 이 정책이 고착되어 외몽골은 몽골공화국, 내몽골은 중국자치구로 남게 되었다 한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며 크기는 1,564,116 km²으로 한반도의 7배이다. 인구는 약344만명(2023년)이며 그 중 100만명이 수도 울란바타르에 거주한다. 몽골 기후는 연간 강수량이 적고 매우 건조한 날씨이며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다. 또한 연중 일교차가 심하여 여름에도 방한대책을 강구 하여 여행 준비를 해야한다. 몽골 여행에 대한 사전탐색을 하고 드디어 출발일 새벽 0시10분 심야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출발하여 새벽4시경에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 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여행에 대한 설렘 때문인지 발걸음이 닿는 대로 공항을 둘러보다 집결장소로 가보니 대구에서 자정버스를 타고 올라온 여학우를 만나서 어색하지만 이런 저런 담소를 나누었다. 출국 수속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몽골로 야브츠가이(몽골어:출발, 가자!)



첫째날

약 3시간 45분 비행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으로 과거로 시간여행 온 듯한 기분이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느낌은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날씨다. 약간의 한기를 머금은 바람이 날 감싸면서 청명한 하늘과 푸른 초원이 우리를 환영했다. 세인베노(몽골어:안녕하세요)를 속삭이며 현지가이드 Erdenebulgan(한국이름 민호)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 탑승했다. 슈퍼마켓에 들러 필요물품을 사고 점심식사를 하러 몽골식당으로 이동 했다. 고릴테술(소고기,감자,면으로 만든 칼국수)과 테므스리후치말(다진 양고기위에 으깬 감자를 덮어 오븐에 구운 경양식)이 나왔는데 처음 접하는 몽골음식으로 오감을 집중해서 탐닉해 보았다. 고릴테술은 연한 육수에 흐물거리는 면 식감으로 가볍게 즐길수 있는 국물요리였고, 테므스리후치말

은 양고기완자보다는 으깬감자의 고소함이 입맛에 맞았다.



칭기즈칸 국제공항



공항에서 마주한 몽골 하늘



고릴테술



테므스리후치말

식사를 마치고 버스로 몽골의 대초원을 가로질러 이동 했다. 몽골은 바람이 세차고 토양도 단단하지 않아 나무가 자라지 못해 나무를 거의 찾아 볼수가 없다. 또한 도로도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해서 포장도로가 쉽게 소실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가 많다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다. 비포장도로면 어떠하리, 창밖으로 보이는 드넓은 초원의 풍경은 답답한 도시의 풍경에 익숙한 두눈을 시원하게 정화해주기에 충분하니~~

테를지국립공원에 위치한 칭기즈칸 마상동상은 250톤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 총높이 40m, 세계에서 가장 큰 기마동상으로 동상제작비용 410만달러(한화 약55억원), 대형장화는 몽골 기마용장화 고탈로 높이 9m, 마상동상의 발크기에 맞춰 제작되었다. 기마동상 전망대에 오르면 테를지의 드넓은 광야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느낌이였다.칭기즈칸 마상동상은 대몽골제국 8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었는데 몽골인들의 신으로 추앙 받는 칭기즈칸의 역사박물관도 겸하고 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어워라는 돌무더기에 들렸다. 몽골에서는 이 어워에 돌을 얹고 어워 주위를 세 바퀴 돌며 소원을 비는 전통 신앙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서낭당과 비슷하다. 초원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하는 어워는 몽골에서 재앙을 막아준다고 믿으며, 어워를 만나면 멈춰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몽골의 오랜 전통이다. 레드락 리조트에 도착, 게르식 숙소에 짐을 풀었다. 몽골 전통 게르는 아니지만 현대식으로 만든 숙소는 4인침대가 놓여 있는 아늑한 공간이다. 바닥전기난방이 들어와서 게르는 춥다고 듣고 왔는데 사우나 느낌마저 들었다. 다음날 기상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조 게르숙소에만 전기판넬이 켜져 있어서 따뜻 했고, 다른조 숙소는 전기판넬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밤새 추웠다고 한다. 학우들은 그냥 게르가 원래 춥다고 생각하고 잤다고 한다. 웃지못할 해프닝이었다. 몽골의 밤하늘을 감상하기 위해 모두 모여 숙소 근처로 이동 하였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 순간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오묘한 색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내 눈으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알라딘의 양탄자를 타고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지만 눈과 가슴에 담긴 것 보다는 부족한 듯 싶다.



어워



게르식 숙소



둘째날

일정의 시작은 승마체험이다.세계의 말들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몽골말은 영상45도에서 영하45도 까지 견디며,생존력이 뛰어나고, 장거리이동에 적합하다고 한다.칭키즈칸은 약50개의 부족을 각 개 격파해서 통합했는데 초원에서 적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사람이 누우면 말도 눕도록 훈련시켰으며, 재갈을 물리지 않아 말의 폐활량이 커지게 훈련시켜 빨리 달릴수 있게 해서 기마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다 한다. 간단히 말에 오르는 방법을 설명 듣고 승마체험을 시작 했다. 처

음으로 경험하는 승마라 긴장되고, 걱정 되었지만, 온몸에 힘을 풀고 말의 리듬에 맞추려고 노력하였다.말을 타고 초원을 트레킹 하는 기분이 마치 전쟁에 참여하는 몽골의 기마병이 된듯한 느낌이였다. 말이 속도를 올릴때면 엉덩이가 위아래로 빠른 속도로 찢는 바람에 흥분이 배가 되었다.1시간 정도의 승마 트레킹이 끝나고 나니 다리가 후덜거리고 꼬리뼈쪽이 아파왔다. 저녁에 확인해보니 안장 뒤쪽의 튀어나온 쇠부분과 마찰로 인한 엉덩이 상처가 나 있었다.말이 달릴때는 다리에 힘주고 엉덩이를 띄워야 한다는 것을 아프게 경험했다.



유목민 마을에 도착해서 전통게르를 둘러보았다. 게르는 X자 모양의 자바라 5개와 기둥2개, 석가래 81개, 양털,가죽으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 2명이 두시간이면 완성된다고 한다.기둥 두개는 남편과 아내를 뜻하며, 왼쪽에는 손님자리, 오른쪽에는 가족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유목민이 준비해준 아이락과 아롤, 보르초그, 으름을 맛보았다.몽골인의 주식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차강이데(하얀음식)으로 유제품을 뜻하고, 다른 것은 올랑이데(붉은음식)으로 육류를 뜻한다.아이락은 마유주로 시큼한 치즈맛이 느껴지고, 아롤은 우유과자, 으름은 우유의 지방을 굳혀 크림처럼 만든 유제품이며, 보르초그는 도너츠 식감의 빵이다.



티베트 양식의 불교사원 아리아발 사원으로 가는길에 테를지 트레킹을 하였는데 들꽃이 핀 초원과 돌산과 하얀구름, 청명한 하늘이 어우러져 형언할수 없는 자연미를 뽐내었다. 새벽사원이라 불리는 아리아발사원은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원에는 스님이 상주하지 않으며, 1년에 한번씩 숙박하며, 승급 공부를 한다.부처님이 타고 다녔다는 흰코끼리 형상을 한 아리아발 사원의 108개 계단은 코끼리의 코부분이다.계단을 다 오를때까지 뒤를 돌아보면 안된다는 가이드의 말에 혈떡이며 계단을 올랐다.사원 주위에는 108개의 마니차라는 원통이 있다.모두 돌리면 전생의 죄가 사라진다고 하니 열심히 경건하게 돌렸다.본당에는 관음보살을 모시고 있다. 내려오는 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건너지 못한다는 피안의 다리를 무사히 건너왔다.



거대한 거북이형상을 한 거북바위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허르혁을 맛보기 위해 가이드 추천 찐맛집으로 향하였다. 허르혁은 양가죽안에 돌과 양고기, 감자등을 넣고 찐요리로 국물이 스테미너에 좋다고 하며, 안에 있는 뜨거운 돌을 꺼내서 손 마사지를 하는게 몽골의 전통문화이다. 맛집이라 그런지 양고기의 잡내가 1도 없었으며, 갈비가 특히 맛있었다. 허르혁과 아르히(아이락을 증류해 만든 보드카) 한잔에 하루의 여독이 씻겨져 간다.



셋째날

아침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두 번째 승마트레킹을 하였다. 이번 코스는 언덕방향이다. 어제 한번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여유롭고 부드럽게 승마를 즐길수 있었다. 초원의 경치를 즐기며,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이제 테를지국립공원을 벗어나 버스로 1시간 30분 달려서 울란바타르에 도착하였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는 ‘붉은영웅’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한때는 사회주의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색깔이 아름다운 거리의 카페에서 웨딩포토 촬영중인 몽골의 신혼부부를 볼 수 있었다. 일행 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국립(역사)박물관으로 이동하여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다. 1전시실은 몽골의 선사시대로 약 80만년 전부터 몽골에 살던 고인류가 남긴 석기들과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생활도구,토기,장신구,무기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2전시실은 고대 유목 시대로 몽골의 조상인 훈누(흉노) 이후 돌궐-위구르-거란 시대의 역사와 문화 및 생활상을 보여주는 각종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3전시실은 몽골의 20여개 민족별 전통의상과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다. 보기 드문 화려한 몽골여성의 머리장식과 옷 및 장식 등을 감상할 수 있다. 4전시실은 몽골제국 시대로 이흐 몽골국과 몽골제국 시대로 나뉘서 칭기즈칸이 건국한 이흐몽골국에 관련되는 귀중하고 화려한 자료들과 몽골제국의 수도 하르호름에서 출토된 유물 및 각종 무기와 외교문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5전시실은 몽골인의 정신문화를 보여주는 각종 유물들과 몽골 전통 예술품들 및 악기/놀이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6전시실은 유목민들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목축,수렵에 관련되는 도구와 농기구 그리고 이동식 가옥인 게르를 볼 수 있다. 7전시실은 청나라의 지배시대로 몽골은 복원이 청나라에 복속된 1635년 부터 청나라가 멸망하는 1911년 까지 약 275년 동안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지배를 받았다. 이 당시 사용하던 고문 도구와 갑옷 및 무기 등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여 세운 백드칸 시대(1912~1919)때에 관련되는 기록과 사진 및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품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8전시실에는 1921년부터 1990년까지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이 때의 몽골 사회를 보여주는 문서와 사진 등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9전시실은 민주주의와 개혁의 시기로 1990년에 소련의 붕괴와 함께 몽골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전시실에서 이와 관련된 사진과 문서 자료를 볼 수 있다. 몽골의 과거를 엿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청나라의 지배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와 같은 탄압이 연상되어 가슴이 아리었다. 역사박물관에서 나오니 몽골국회의사당 건물이 있었고, 의사당 건물 앞쪽이 수흐바타르광장이다. 수흐바타르는 몽골독립의 아버지이자 혁명영웅으로 청나라 지배하에 몽골이 수탈과 탄압을 받던시대에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중화민국으로 바뀔 무렵 청년들을 중심으로 몽골인민당을 결성하고 1921년 이 광장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그래서 이광장 이름이 수흐바타르광장인데 민주화운동이후 광장명칭을 칭기즈칸광장으로 변경 하였다가 수흐바타르 후손들과 인민당이 소송을 제기, 2016년 승소 하면서 다시 수흐바타르광장으로 변경, 현재는 두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광장에서 Food Festival이 한창이어서 여러 가지를 즐기며 공연도 감상했다.





넷째날

어제 순식간에 쏟아진 폭우로 방문 취소된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을 방문하였다. 이태준 열사는 1907년 세브란스의학교(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911년에 제 2회로 졸업하였고, 선생은 김필순, 주현칙과 함께 안창호 선생이 만든 “청년학우회”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세브란스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1912년에는 중국 남경으로 망명하여 ‘기독교의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다가 처사촌이 된 애국지사 김규식 선생의 권유로 1914년에 몽골 후레로 가서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개설하였다. 특히 ‘화류병(매독)’퇴치에 앞장섰고, 몽골 마지막 황제 주치의가 되었으며, 1919년에는 몽골로부터 ‘에르덴 오치르’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1921년 2월 당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러시아 백위군 운게른 부대에 의하여 피살당하니 38세의 아까운 나이였다. 선생의 묘는 성산인 보그트산에 있다고 전하며, 1980년 한국정부는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고, 기념공원 조성공사중이었다. 기념공원을 뒤로하고 자이승 전승 기념탑으로 향하였다. 자이승 전승 기념탑은 몽골이 구소련과 함께 연합국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것과 몽골 사회주의 혁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71년 구소련이 몽골에 기증한 탑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다양한 전쟁에서 ‘알려지지 않은 군인과 영웅’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는데 상징적으로 구소련의 붉은 군대의 상징이 있는 깃발을 들고 27미터 높이의 구소련 군인 동상을 볼 수 있다. 거대한 군인 동상을 지나 전망대에 오르면 동그렇게 펼쳐진 벽화를 볼 수 있는데 스탈린과 레닌을 포함한 구소련의 모자이크 형식의 사실주의 형식을 볼 수 있다. 이외에 2차 세계 대전 당시 구소련-몽골 연합군이 일본과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과 짓밟히는 욱일기 및 말과 같이 있는 몽골의 그 당시 지도자 허틀러깅 처이발상의 모습 및 1921년 몽골 독립 선언에 대한 구소련의 지원, 2차 세계대전의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전투인 할인골 전투(1939년)에서의 구소련-몽골에 의한 일본 관동군의 패배와 같은 장면을 볼 수 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자이승 전승 기념탑 주변은

한국의 강남처럼 신흥부촌이다. 1990년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면서 혁명을 상징하는 기념물 주변에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부가 물려들고 있는 것은 몽골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게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격동의 시대를 지나 기회와 대도약의 땅으로 몽골이 거듭나고 있다.



점심식사후 간단테그치늘렌 사원으로 향했다. 사원에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거대한 불상이 있다. 원래는 몽골의 8대 "복드 칸(Bogd Khan)"이 매독으로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1911년에 만들었는데, 1937년 공산주의 시절에 러시아로 실려가 녹여서 총알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지금의 불상은 1996년 일본과 네팔의 기부금으로 다시 만들어졌는데, 높이 26.5 m, 무게 20톤으로 구리에 금도금을 하였다.



몽골전통민속공연 예약이 있어서 서둘러서 공연장으로 출발! 민속공연은 춤과 노래 악기연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통복장을 한 무희들의 현란한 춤사위도, 전통악기와 금관악기의 콜라보도 마치 내가 몽골제국의 칸이 되어서 공연을 즐기고 있다는 즐거움을 주었다. 특히 머링호르(마두금)라는 말머리 장식의 현악기 연주에 허미 소리 공연은 신기했다. 허미란 성대의 울림을 통해서 높은음과 낮은음을 동시에 같이 노래하는 것으로, 낮고 투박한 음색과 찢어질듯한 높은 고음이 한사람의 목에서 같이 나왔다. 허미는 타고난 성대를 가진 몽골인만 가능하다고 한다. 몽골의 자연의 소리, 새소리, 짐승 소리들도 자유자재로 표현한다. 공연의 끝부분에는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데 타국에서 듣는 아리랑은 뭔가 가슴이 찡하게 하였다.



이렇게 몽골의 마지막 밤은 깊어가고, 4박5일의 몽골여행도 끝이났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서쪽 끝으로 오스트리아의 빈에서부터 동쪽 끝으로 일본의 후쿠오카, 남쪽 끝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까지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제국의 현재는 어떠한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 없는 대화이며, 역사는 진보한다. 단 우리의 역사가 진보할 것인지 퇴보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E.H.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글귀가 생각나는 밤이다.

다라 올 자츠 가위(다음에 또 만나요~~)